

바다가 나에게 건넨 위로 내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이유

이영은 아리랑국제방송 뉴스센터 PD



나의 성장을 도와준 스쿠버다이빙

“취미는 스쿠버다이빙이에요.”

이런 말을 꺼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모험적이며 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지의 영역이 더 많은 바다를 탐험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스쿠버다이빙은 외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했던, 의외로 다소 영적인(?) 취미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어떻게 스쿠버다이빙을 시작했고, 무슨 경험을 했으며 또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필리핀 아날라오



오키나와 세소코 해변에서

바다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저에게 바다는 육지에서 ‘구경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탁 트인 해변과 푸른 물빛을 좋아해서, 틈이 날 때마다 바다를 낀 곳으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종종 삶에 지칠 때면 그렇게 짠 내 섞인 바람을 맞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이십 대 끝자락 무렵, 우연히 들른 한

술집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행담을 주고받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면, 보기만 하지 말고 직접 들어가 보라”고요. 호기심에 배워보기로 합니다.

• 교훈 1 : 겸손

수중 영상이나 사진에서 접하던 дай버들의 모습과 달리 물속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유로워지려면,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무모하게 호기심 하나로 달려들었던 스쿠버다이빙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모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았죠. 무엇보다 나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함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을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호흡을 참고 물속에서 노는 스킨다이빙을 먼저 합니다. 스킨스쿠버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3m~5m의 얇은 물에서 이퀄라이징(Equalizing, 압력 평형 : 호흡을 통해 귀속의 압력을 수중 압력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과 잠영을 연습해야 했는데, 호기롭게 물에 들어간 저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영장 바닥을 찍지도 못했죠.

이퀄라이징하지 못해서 귀는 터질 듯 아팠습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단풍잎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물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퀄라이징을 연습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수영 수업도 등록했구요. 아직 접영까지는 어렵지만 물속에서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는 있게 되었죠. 무슨 일이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다



수영장에서 스킨다이빙 연습 중인 필자



마스크 클리닝을 연습하는 필자.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배워야 하는, 걸음마를 다시 시작한 아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 교훈 2 : 근성

대부분의 레저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 대비 스스로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장비를 스스로 조립하고, 운반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무게도 꽤 나갑니다. 입수 준비를 할 땐 '내가 뭘 위해서 이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웨트슈트는 왜 이렇게 입기 힘든지, 공기통과 무게추는 왜 그리도 무거운지... 그런 지난하다고 느껴지는 과정을 다 이겨내야 물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입수를 준비하는 필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바다에서 세상을 배우다

처음 편다이빙으로 나간 바다는 사회생활과 같았습니다. 언제 어떤 파도와 조류가 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선상과 육지에서 다른 다이버들과의 교류도 필요했죠.

나의 상태와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다른 다이버의 의사 또한 빠르게 캐치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거나 남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당시의 저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는데, 저만 옳고 타인은 그르다는 아집과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이빙 크루들과 필리핀 오슬름에서



버디와 함께, 필리핀 아닐라오에서



사람은 받은 만큼 인정을 베풀 수 있다고 하죠. 바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유와 친절을 경험하며 저 또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과 마찬가지로, 바닷속에선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이시가키에서는 스틸로 된 공기탱크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 거북이처럼 뒤집어지기 일췌였고, 필리핀 아닐라오에선 갑자기 거센 역조류와 흐린 시야를 경험하며 버디와 함께 서로의 팔을 잡고 의지한 채 겨우겨우 안전정지를 하며 수면으로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바다에서는 오히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몸의 힘을 빼고, 흐름에 나를 맡긴 채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 중요했죠. 아니, 강박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바다의 절벽과 산호, 물고기들의 스쿨링을 보면 바다 밖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 말입니다.



일본 이시가키 쿠로시마 수중에서



역조류가 오기 직전 필자와 버디. 필리핀 아닐라오



일본 이시가키의 수중 협곡 속으로 들어가는 필자



사이판에서 처음 조우했던 잭피쉬 스쿨링과 거북이

삶의 의지를 찾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겪는 지구보다 훨씬 느린 밀러 행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 7년과 같죠. 저는 스쿠버다이빙을 할 때마다 이 행성을 떠올립니다. 생각보다 스쿠버다이빙으로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짧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잠수 시간은 30분 남짓 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주는 경험은 영원 같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마치 밀러 행성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 30분이 지나고 수면을 박차고 나와 두 발로 땅을 밟으면 저는 비로소 새로 태어난 기분을 느낍니다.

아마 이것이 제가 틈만 나면 바다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스쿠버다이빙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와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삶을 살아낼 위로와 용기 또한 얻으셨으면 합니다. 🐬



수중에서 여유를 즐기는 필자, 제주도 서귀포



중급다이버 자격 실습을 마치고 수면에 나온 필자, 강원 고성